



고경미 안젤라
장애인주일학교 자모회, 연희동성당

조용하고 경건한 미사

엄숙하고 조용한 미사 분위기를 누군가 깨뜨리면 당황스럽고 싫지요. 어떨 때는 화도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십중팔구는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부모들 마음은 노심초사, 심장은 더욱 쿵쿵쿵쿵한답니다.

중중에 속하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한창 자랄 때는 어디 가서나 저는 죄인처럼 후닥닥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두고 따로 미사를 보거나 외출을 하려면 아이 옆에 다른 사람을 붙들어 댈야 하니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아이의 행동 때문에 일상이 늘 긴장의 연속이라 수시로 눈물 콧물 안 흘려본 발달장애인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은 어디인가?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셨건만 제가 그리로 가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동네 어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동네 교회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돌고 돌아 큰 교회에 가보니 장애인 주일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음 편히 성인 예배를 볼 수 있었지만, 아이는 동떨어져 모르는 사람들과 1시간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니 몹시 불안한지 다시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받아 본 명동성당 주보에서 장애인 신앙교육부 강연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 성당에 찾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도, 제 영혼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버스 세 정거장 거리의 지구 본당 장애인 주일학교에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선 중고등부 비장애인 친구들과 장애인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미사 도중에 장애인 친구들 중 몇몇이 소

란스럽게 소리 내고,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런데 비장애인 친구들이나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성인 부모들 모두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니! 그때 저는 또 다른 이유로 감동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런 감사한 분위기의 미사라도 경건한 미사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를 해치면, 그 부모들은 언제나 안절부절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하느님께 맡기고 미사 시간만큼은 우리도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영혼도 좀 쉬어야지요.” 부모들도 이렇게 힘든데, 장애인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노고가 정말 큼니다.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경건한 미사를 모시는 다른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언젠가는 아이와 함께라도 보통의 교중미사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미사를 모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야밤!
안녕!

정은희 마리아
마천동성당

마로 14강 36절